

『字類註釋』의 자석(字釋) 연구

- 사전 미등재어를 대상으로 -

서수백*

|| 차례 ||

1. 머리말
2. 자석(字釋) 분석
3. 맺음말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19세기 후반의 자석 자료인 『자류주석』(1856)에 수록된 자석(字釋)들 중 고어사전과 현대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자석들을 추출하여 이들의 의미를 알아보고 새로운 어휘 정보를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다.

『자류주석』에 수록된 자석 중에는 고어사전에 없으면서 현대 국어사전에 실려 있는 것들도 상당수 있다. 하지만 『자류주석』이 19세기 후반의 자료인 점을 고려할 때 고어사전과 현대 국어사전에 모두 실려 있지 않은 자석들의 분석이 새로운 어휘 정보로서 더욱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자류주석』에서 추출한 사전 미등재어는 모두 92개인데, 부류별로는 초목류(草木類)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 그리고 고유어보다 한자어 자석이 더 많다. 그 예로 ‘좁상이별’, ‘간습’, ‘식진’, ‘잠위약’, ‘얄울’, ‘변협’, ‘쟁길’, ‘피널’, ‘단곡의’, ‘본손’, ‘츄들’, ‘원통’, ‘쇠다디’, ‘려죽’, ‘도죽’, ‘니목’ 등이 있다. 해당 자석의 한문주석 분석을 통해 살펴본 이들의 의미는 각 부류별 의미 범주에 속하는 일상적인 의미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후 『자전석요』나 『신자전』에는 이들 자석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자류주석』에만 나타나는 유일 자석 어휘로 추정되는 것들이 많다.

* 대구가톨릭대학교 한국어문학부 조교수

어휘사적인 측면에서 어휘 연구는 시기별 문헌에 수록된 개별 어휘들의 의미와 형태 등을 면밀하게 비교 분석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 따라서 새로운 문헌을 찾고 그것을 분석 연구하는 작업은 우리 국어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자석(字釋) 자료는 많은 어휘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자료이다. 자석 자료를 살펴다 보면 전후 시기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은 새로운 자석 형태를 흔히 볼 수 있다. 『자류주석』에는 여타의 자석 자료들에서 발견할 수 없는 어휘 형태가 상당수 나타난다. 이들의 의미와 형태를 규명함으로써 우리 어휘사에 새로운 어휘 목록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자류주석, 자석, 사전 미등재어, 자석 자료, 어휘사, 한문주석, 부류

1. 머리말

어휘사적인 측면에서 어휘 연구는 시기별 문헌에 수록된 개별 어휘들의 의미와 형태 등을 면밀하게 비교 분석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문헌의 유형이나 시기에 따라 전후 동일 유형의 문헌들과 관련 문헌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개별 어휘 정보가 확보되고 이들은 하나의 어휘 체계를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문헌을 찾고 이를 분석 연구하는 작업은 우리 국어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한자 자석(字釋) 자료는 자석의 보수와 개신의 성격을 떠나 일차적으로 많은 어휘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휘 연구에 유용한 자료이다. 자석 자료들마다 수록된 자석의 수와 자석 방식도 다양하여 한자 자석에 대한 연구는 어휘사적인 측면에서 더욱 요구되는 연구 분야이다.

이러한 자석 자료의 문헌적 가치에 기초한 본 연구의 목적은 19세기 후반의 한자 자석 자료인 『자류주석』(1856)¹⁾에 수록된 자석들 중 고어사전

과 현대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자석들을 추출하여²⁾ 이들의 의미를 규명하여 새로운 어휘 정보를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다.

여타의 자석 자료들과 비교할 때, 『자류』의 가장 큰 특징은 매 표제 한자마다 한자음, 의미, 관련어, 典據 등의 정보를 담은 한문주석이 있다는 것이다. 이 한문주석을 통해 사전과 여타의 문헌 자료에 나타나지 않는 자석들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본고에서 추출한 사전 미등재어 자석 어휘들에 대한 의미 정보도 이 한문주석을 먼저 분석한 후 여타의 문헌 자료와 『석요』, 『신자』 등을 비교하여 의미를 규명 혹은 추정하였다.

한자 자석은 한자의 제1자석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어지는 보수성을 지닌다. 그러나 『강희자전』, 『이아』, 『설문해자』 등을 공통적인 전거(典據) 자료로 하는 우리의 한자 자석 자료들은 개별 한자의 자석을 제시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른 점이 있다. 박병철(2006: 244-247)에서는 상용자석과 문맥자석³⁾ 중 어느 것을 선택하여 제시하느냐에 따라 문헌마다 자석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함께 편찬자가 자의적으로 당시에 사용하는 어휘 형태를 자석으로 제시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자석 자료를 살펴다 보면 전후 시기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은 새로운 자석 형태를 흔히 볼 수

1) 이하 『자류』로 쓰고 본고에서 활용한 문헌의 약호는 다음과 같이 쓴다.

『몽어유해상』→『몽상』, 『몽어유해하』→『몽하』, 『방언유석』→『방석』, 『신자전』→『신자』, 『신증유합』→『신증』, 『역어유해보』→『역보』, 『역어유해』→『역유』, 『왜어유해』→『왜유』, 『자류주석』→『자류』, 『자전석요』→『석요』, 『표준국어대사전』→『표준』, 『훈몽자회』→『훈몽』.

2) 본고에서 활용한 고어사전은 『남광우 고어사전』, 『이조어사전』, 『17세기 국어사전』이고 현대 국어사전은 『표준국어대사전』을 활용하였다.

3) 박병철(2006: 246-247)에 따르면 一字數義인 한자가 자석을 나타낼 때 가장 대표적으로 먼저 제시되는 자석이 상용자석이고, 개별 한자가 가지는 여러 뜻 가운데 문맥에 따라 선별적으로 제시되는 자석이 문맥자석이다.

있다. 『자류』에도 여타의 자석 자료들에서 발견할 수 없는 어휘 형태가 상당수 나타난다. 이들을 규명함으로써 우리 어휘사에 새로운 어휘 목록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⁴⁾

2. 자석(字釋) 분석

『자류』의 총론과 한문주석에서 『강희자전』, 『규장전운』, 『전운옥편』, 『훈몽자회』, 『설문해자』, 『동의보감』, 『화동정음통석운고』, 『삼운성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문헌들은 『자류』를 편찬할 때 한자음이나 자석을 다는데 참고가 된 문헌들이다. 『자류』의 10,800여 표제 한자의 한문주석과 우리말 자석에 이들 문헌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특히 이자동석(異字同釋)⁵⁾인 경우 한문주석에서 전거 문헌의 내용을 바탕으로 개별 한자의 의미를 세분화하여 변별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자류』이 가지는 뚜렷한 사전적 성격이다. 따라서 『자류』의 우리말 자석은 한자 자석 방식의 변천이나, 근대 국어 시기 어휘 자료적 측면에서 연구의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고어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자석을 추출하고 이를 『표준』에서 찾아 『표준』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은 자석들을 최종적으로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자류』이 19세기 후반의 자료이고, 수록된 자석 중에는 고어사전에 실려 있지 않지만 『표준』에는 등재되어 있는 자석도 상당수

4) 본 연구의 초점은 개별 어휘의 출현 시기나 의미 변천 등에 대한 분석과 판정보다 『자류』의 자석 어휘 중 사전 미등재어들을 추출하여 이들의 의미 정보를 밝히는 데 있다.

5) 이는 동일 형태의 우리말 자석이 여러 표제 한자에 제1자석으로 제시되는 것을 말한다. 『자류』에서 우리말 자석 ‘옥’이 제1자석으로 제시되는 표제한자는 49자이다. 이에 대한 것은 서수백(2009: 141-163) 참조.

있음을 볼 때, 고어사전과 『표준』에 모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자석들의 분석이 새로운 어휘 정보로서 더욱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제 추출한 자석들을 부류별로 분석해 보기로 한다.

1) 天文類

① 昴 줌상이별 묘 | 日雞旄頭(上 天文 2次)

한문주석에 따르면 ‘昴’의 자석 ‘줍상이별’은 ‘雞旄頭’를 뜻한다. 이는 별자리의 모양을 나타내는 듯하다. ‘줍상’이와 ‘별’의 합성어인데 『표준』에 ‘줍생이’가 ‘묘성(昴星)을 이르는 말’로 풀이되어 있다. 『석요』와 『신자』에 ‘昴’의 자석은 ‘묘성(西陸宿)’, ‘묘별(西陸宿名二十八宿一)’로 되어 있다. 『표준』에도 한자어 ‘묘성(昴星)’은 표제어로 등재되어 ‘이십팔수(二十八宿)의 열여덟째 별자리의 별들’로 풀이되어 있지만 고유어 ‘줍생이별’은 ‘묘성’의 정의항에 관련어의 하나로만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⁶⁾

2) 水火類

① 澁 간습 습 不滑(上 水火 9호)

② 澌 식진 식 水索也澌也(上 水火 9호)

① ‘간습’은 ‘거칠다(不滑)’의 뜻이다. 『신증』에 ‘澁’이 ‘범별『下 53b』’로 자석되어 있는데 ‘범별’은 고어사전에 ‘뚱다’로 풀이되어 있다. 『몽상』, 『방

6) 묘성(昴星) 『천문』 이십팔수(二十八宿)의 열여덟째 별자리의 별들. 황소자리의 플레아데스성단에서 가장 밝은 6~7개의 별로, 주성(主星)은 황소자리의 이타성이다. 중국 구요성(九曜星)의 하나로, 청룡을 타고 손으로 해와 달을 떠받들고 분노하는 신상(神象)의 모습이다. ≍ 계도05(計都) · 계도성(計都星) · 묘03(昴) · 묘수03(昴宿) · 육련성(六連星) · 줌생이별, 『표준』.

석, 『역유』에 ‘澁’이 모두 ‘뺨다’로 나오고 용례로 ‘路澁 길 사오납다/眼澁了 눈 즈벽즈벽흐다/鉅澁住 톱 끼이다 『역유』가 있다. 『신자』에는 ‘不滑 조삼할/알삼할/깔깔할/썰그러울’로, 『석요』에는 ‘不滑 깔깔할’로 나온다. 『표준』에는 표제어로 ‘간삽’은 없고 ‘건삽하다’가 ‘말라서 윤택이 없고 꺾꺾하다’로 풀이되어 있다. ② ‘식진’은 한문주석에서 두 가지 의미를 알 수 있다. ‘얼음(水索)’과 ‘기운이 다하다(盡也)’이다. 부류 ‘水火類’에 해당하는 의미는 ‘얼음(水索)’이다. 『왜유』에 ‘澌’가 ‘성에 식’로 나오고 『역보』에 용례 ‘結澌’가 ‘성에 지다’로 나온다. 『석요』와 『신자』 모두 ‘성에/석얼음(流冰)’으로 자석되어 있다. 『표준』에는 표제어 ‘시진하다(澌盡--)’가 있는데 이는 ‘기운이 빠져 없어지다.’로 풀이되어 있고 水火類에 해당하는 의미는 없다.⁷⁾

3) 山川類

① 泳 잠위약 영 潛行水中(上 山川 19조)

자석 ‘잠위약’은 ‘헤엄치다’의 뜻이다. 『훈몽』과 『신증』에 ‘泳’이 ‘므즈미’ ‘므즈믈’로 자석되어 있는데 ‘므즈미/므즈믈’은 현대어 ‘무자맥질’과 같은 뜻으로 ‘물속에서 팔다리를 놀리며 떴다 잠겼다 하는 것 『표준』이다. 『석요』와 『신자』에는 『자류』와 동일한 한문주석이 나오고 자석은 ‘잠수할’, ‘물자막질할/풍감질할’로 되어 있다.

4) 君國類

① 涼 얄울 량 薄也此從三水溫涼從二水州名國名氏 | 呂光又 | 張寔南 |

7) ‘시진하다’의 풀이항에 고어 정보 ‘성에(流冰) 【『서예(流澌)<훈해>】’가 제시되어 있기는 하다.

鮮卑禿?鳥孤北 | 段業又 | 北魏所封匈奴沮渠蒙遜西 | 李曰高唐之祖也 (上郡國 24次)

君國類에 나오는 자석 ‘얄우다’는 ‘얄다’ 혹은 ‘얄다’의 뜻으로 보인다. 한문주석을 보면 먼저 ‘薄也’가 나오는데 이는 ‘얄다’의 뜻이다. 이어 국명, 지명과 관련한 내용이 나온다. 『역유』에 ‘涼’의 용례로 ‘涼枕 등으로 겨룬 베크’, ‘涼席 돛’, ‘涼床 평상’, ‘秋涼兒 막얄이’, ‘涼快 서늘하다’, ‘涼棚 가개’, ‘涼圈子 디우 업슨 갓’, ‘涼墩 등으로 겨룬 안석’ 등이 있고 『역보』에도 ‘鋪涼花 소음 두다’가 나온다. 『석요』나 『신자』에도 ‘薄也얄을/佐也도을/信也밋블 『신자』’, ‘량박할(薄也) 『석요』’로 나온다. 『표준』에 표제어 ‘양박하다(涼薄--)’가 나오는데 이는 ‘얼굴에 살이 없다.’, ‘마음이 좁고 후덕하지 못하다.’로 풀이되어 있다.

한문주석에 국명, 지명 등의 내용이 있지만 우리말 자석 ‘얄을’의 뜻을 부류인 君國類의 의미 범주와 연결하기가 쉽지 않다.⁸⁾ 여기에서, 분류 어휘집에서 우리말 자석과 부류와의 적합성에 대한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5) 倫常類

① 澆 얄을 교 薄也沃也人名寒泥子一作稟 (上 倫常 35호)

앞서 君國類에도 나왔던 자석 ‘얄을’은 倫常類에도 나온다.⁹⁾ 倫常類에서 ‘澆’의 한문주석을 보면, 군국류와 공통된 ‘얄다(薄也)’의 뜻이 가장 먼저 제시되어 있다. 이후에 나오는 ‘人名’은 ‘澆’를 倫常類에 분류한 근거가

8) 제시된 ‘얄을’이 상용자석인지 문맥자석인지에 대한 판단은 『자류』의 단일자석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있는 후에 가능하리라 본다. 이는 추후 과제로 미룬다.

9) ‘얄을’ 이외에도 『자류』에는 동일 자석이 부류를 달리하여 나타나는 예가 소수 있다.

될 수 있다. 『방석』이나 『역유』에 ‘澆’의 용례로 ‘澆水 손시시 『방석』, ‘澆手 성녕 못춘 후에 손시시 『역유』’가 나오는데, ‘손시시’는 현대어 ‘손씻이’이다. ‘손씻이’가 ‘남의 수고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적은 물건을 주는 일. 또는 그 물건’ 『표준』이므로 이는 倫常類의 의미 범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석요』와 『신자』에는 ‘澆’에 대해 각각 ‘물대일(沃也)/얇을(薄也)/사람의일흠(人名) 『석요』, ‘浹也걸찰/漓也물뿌릴/薄也여를 『신자』’로 나온다.

6) 身體類

- ① 併 변협 변 并脅也筋骨連合爲一 (上 身體 40ㄸ)
- ② 皺 썩길 추 蹙摺兒 (上 身體 41ㄸ)

① ‘변협’은 한문주석에서 신체 일부를 뜻하는 ‘并脅’임을 알 수 있는데 분명히 ‘병협¹⁰⁾’이 아닌 ‘변협’으로 판각되어 있다. 『신자』에 『자류』와 동일한 한문주석 ‘并脅筋骨連合爲一’이 나오고 자석은 ‘통갈비’로 되어 있다. 『석요』도 ‘통갈비(并脅)’로 나온다.

② ‘썩길’은 한문주석과 여타 문헌에 제시된 용례로 미루어 ‘주름지다’ 혹은 ‘썩그리다’의 뜻으로 보인다. 이는 『표준』에 ‘팽팽하게 썩기지 못하고 구겨서 썩글썩글하게 되다. 또는 그렇게 하다.’로 풀이되어 있는 표제어 ‘썩기다’의 뜻과도 유사하다. 『훈몽』에 ‘皺’가 ‘썩길’로 나오고¹¹⁾, 고어사전에 ‘썩기다가 ‘썩그리다’로 나온다. 『몽상』, 『방석』, 『역유』, 『역보』에 용례 ‘皺眉 눈섭 썩기다’, ‘面皺 ㄴ체 살지다’, ‘皺眉 눈살 집피다’, ‘緊皺眉 눈살

10) 한자어 ‘병협(并脅)’도 고어사전과 현대 국어사전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11) 『두시언해 초간본』에 ‘썩기다<썩그리다>’가 나오고 『법화경』에 ‘썩의다’가 나오지만 ‘썩-’은 없다.

미이 지피오다, ‘面皺 ㄴ체 살지다’, ‘皺眉 눈살 집피다’가 나온다. 『석요』와 『신자』에는 ‘蹙摺주름질 추’, ‘蹙摺貌쭈그어질’로 나온다.

7) 善惡類

① 茶 피널 𪗇俗날又𪗇 | 然疲兒 (上 善惡 56ㄷ)

‘茶’의 자석 ‘피널’은 ‘피곤하다’의 뜻이다. 한문주석 ‘疲兒’에서 이를 알 수 있고, 한문주석 ‘茶然’은 『표준』에 ‘날연-하다(茶然--)’로 표제어가 등재되어 있다.¹²⁾ 『석요』와 『신자』에 각각 ‘날연할(疲貌 | 然)’, ‘고달필/날연할(| 然疲貌)’로 나온다.

8) 學業類

① 趣 의취 추 指意向也疾也又추周官 | 馬촉소促催也(上 學業 62ㅎ)

‘趣’는 한자음이 ‘취’, ‘추’, ‘촉’ 세 가지가 있고 각각의 음에 따라 의미가 다르다. 자석 ‘의취’는 한자음 ‘취’에 해당하는 자석인데 ‘뜻(指意)’, ‘향하다(向也)’, ‘괴롭다(疾也)’의 뜻의 주석이 있다. 『석요』에는 ‘指意의취 추 疾也 썰을 추周官 | 馬나라벼살 추’로 나오고 『신자』에는 ‘[취] | 向疾也추창할/指意뜻/[추] | 馬掌馬官추마벼슬/[촉]催也재촉할’로 나온다. 『몽하』, 『방석』, 『역보』에 ‘趣’의 용례로 ‘沒趣兒 재미없다’, ‘有趣 재미있다’, ‘沒趣 재미없다’가 나온다. 『표준』에는 ‘의취(意趣)’가 ‘지취(志趣)’와 동일한 ‘의지와 취향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풀이되어 있다.

12) ‘날연하다’는 ‘피곤하여 기운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되어 있다. 『표준』.

9) 飲食類

- ① 魷 불염간어 첩 不鹽乾魚又青衣魚(上 飲食 79ㄴ)
- ② 剔 썩일 턱 解骨肉也又全剃데(上 飲食 79ㅎ)

① ‘불염간어’는 한문주석 ‘不鹽乾魚’ 그대로 ‘저리지 앓고 말린 생선’을 뜻한다. 순수 한자 복합어이다. 『석요』에 한문주석이 『자류』와 동일하게 ‘不鹽乾魚’로 되어 있는데 우리말 자석은 ‘불염건어’로 되어 있다. 『신자』에는 한자 어휘가 아니라 ‘不鹽乾魚’를 풀어서 쓴 ‘저리지안코말린물고기’로 자석되어 있다.

② ‘썩다’¹³⁾와 사동접미사 ‘이’의 결합 형태로 보이는 ‘썩이다’는 ‘뼈를 바르는 것(解骨肉也)’을 뜻한다. 飲食類 의미 범주에서 볼 때 재료의 살을 얇게 저며 내는 것으로 ‘포(脯)’ 혹은 ‘포를 뜨다’와도 유사하다. 『신증』에 ‘剔’은 ‘갓굴’ 『신증』으로 나온다. 『역유』에 ‘剔’이 쓰인 용례 2개가 나오는데 ‘剔牙 니 닦다.’와 ‘剔燈 불뚱 티다.’이다. 『석요』와 『신자』에는 모두 ‘뼈 바를(解骨)’로 자석되어 있다.

10) 衣冠類

- ① 寘 만포 중 蠻賦 | 布(上 衣冠 84ㄴ)
 幪 만포 가 蠻布也名爲 | 言稅也(上 衣冠 84ㄴ)
- ② 禮 단곡의 전 后妃服丹縠衣又喪廬不障袒簣又全袒단 | 楊(上 衣冠 86ㄴ)
- ③ 紉 동다의 순 圓采也條也組 | 皆條薄濶爲組似繩者爲 | (上 衣冠 89ㅎ)
- ④ 捫 골털 곤 叩掾使堅逼而密緻又杼也纂組(上 衣冠 90ㅎ)

① ‘만포’는 ‘寘’과 ‘幪’의 자석으로 쓰였다. 이는 ‘오랑캐에게 세금으로

13) ‘썩다’는 고어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바치던 베'를 뜻한다. 『석요』와 『신자』에는 '세금'의 의미가 부여된 '남녘오랑개부세(蠻賦實布)', '중포세(實布南蠻賦)', '남녘오랑개의구실베(蠻布稅)', '구실베(蠻布稅也)'로 나온다.

② '단곡의'는 '왕비가 입는 붉은 옷(后妃服丹穀衣)'을 뜻한다. 이는 의례 사전에도 나타나지 않는 어휘이다. 『석요』와 『신자』에 '붉은저사옷(丹穀衣)'으로 나온다. 『자류』의 한문주석 '后妃服丹穀衣又喪廬不障袒簣'에서 '단곡의'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③ '둥다외'는 '끈(條也)', '끈을 두르다(圓采也)'의 뜻이다. 『석요』에 '실썩(條也)'로 나오고 『신자』에 '신에실선두를(條也)'로 나온다.

④ '골+티다'의 합성어로 보이는 '골탈'은 직조(織造)의 한 방법으로 보인다. 한문주석 '叩搃使堅逼而密織'로 봐서 '가죽과 같이 굳은 것을 두드리고 쳐서 촘촘하게 꿰매는 것'으로 추정된다. 『석요』에는 '掴'의 자석으로 '두다탈(叩搃)'만 나오고 『신자』에는 '두다탈(叩搃) / 삼을(織也) / 취할(取也) / 쌀(纂組)'로 나온다. 『표준』에 표제어 '골'이 나오는데 이는 '천이나 종이 따위의 얇은 물건을 똑같이 나누어서 오리거나 접는 금'의 뜻이다.

11) 器用類

- ① 鬲 본손 렉又격 鼎曲脚款足款疎濶也 鑊鑊全又격隔全又搨圍九寸
(下 器用 3次)
- ② 鍑 고오리 북 似釜口斂載鬲熟物似二甌俯仰合上有小口(下 器用 3次)
- ③ 觥 시공 평 本觥字兕角可飲無者用木又木也又剛直兕 | | (下 器用 4次)
- ④ 轆 무자에 록 汲水器 | 轆全亦作轆 轆又車槳 轆 | (下 器用 5次)
 轆 무자에 로 轆 | (下 器用 5次)
- ⑤ 篋 冬작마리 비 釵 | 導也 導以導櫛鬢髮使入巾幘裏也全篋竹器取蝦具
(下 器用 6次)

⑥ 鑽 부위 찬 穿物錐金剛 | 似紫石英羚羊角能碎又 쓸을 찬穿也(下器用 6次)

① ‘본손’은 ‘다리가 굽은 솥(鼎曲脚)’이다. ‘鑷’, ‘鑷’이 동일 글자이며 둘레가 9촌(搨圍九寸)이라는 정보가 한문주석으로 나와 있다. 『신자』와 『석요』에 한문주석 ‘鼎曲脚’을 그대로 풀이한 형태인 ‘다리굽은솥’으로 자석되어 있다.

② ‘고오리’는 한문주석에서 두 가지 뜻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솥(似釜口斂載甬熟物)’의 의미이고 또 하나는 현대어 ‘소줏고리(似二甌俯仰合上有小口)’의 의미이다. 두 가지 의미 다 器用類의 의미 범주에 해당한다. 『석요』에는 ‘가마솥(釜大口者)’으로 자석되어 있고 『신자』에는 ‘술고리(釜也)’로 자석되어 있다. 『신자』의 ‘술고리’는 『표준』에 나오지 않는데 표제어로 나오는 ‘소줏고리’와 의미가 같은 것으로 보인다.¹⁴⁾

③ ‘시굉’은 한자어 ‘兕觥’인데 이것은 ‘뿔로 만든 잔’이다. 『훈몽』에 ‘觥’의 자석으로 ‘가탁’이 나오는데, ‘가탁’은 『표준』에 ‘짐승의 뿔로 만든 술잔’이라고 풀이되어 있다. 『신자』에만 자석 ‘썰잔(兕 | 酒器)’이 나온다.¹⁵⁾

④ ‘무자애’는 ‘급수기(汲水器)’의 뜻으로 ‘轆轤¹⁶⁾’를 나타낸다. 『훈몽』에 ‘물자애’가 나오지만 고어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다. 『방석』과 『역유』에

14) ‘소줏고리’는 ‘소주를 내리는 데 쓰는 재래식 증류기. 구리나 오지 따위로 위아래 두 짝을 겹쳐 만든다.’, ‘소주를 담는 오지그릇. 항아리와 비슷하나 주둥이가 병처럼 오그라졌다.’로 풀이되어 있다.

15) 한자 자석 자료들에서 표제 한자에 대해 자석 수와 의미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는 표제 한자의 여러 뜻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여 제시하느냐의 문제이다. 이는 편찬자의 자의적 선택일 수도 있겠으나 전거 자료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자석 자료들이 중국의 『이야』, 『강희자전』을 공통된 전거 자료로 삼았다.

16) 높은 곳이나 먼 곳으로 무엇을 달아 올리거나 끌어당길 때 쓰는 도르래. 『표준』.

‘輓轆’가 모두 ‘즈에’로 나온다. 『방석』에는 용레 ‘墩轂輓 밧 우희 구을리는 돌’이 나온다. 『석요』와 『신자』에 나오는 ‘輓’과 ‘輓’의 자석 형태는 다르다. 『신자』에는 ‘輓’과 ‘輓’ 모두 자석 ‘드레박틀(汲水器)’이 나오지만 『석요』에는 ‘輓’이 ‘박회사이스길(車軌道輓 |)’로, ‘輓’는 ‘활거(圓轉木輓 |)’로 『자류』이나 『신자』에 비해 일반적인 의미로 되어 있다.

⑤ ‘쓰작미리’는 한문주석에서 ‘머리를 다듬을 때 쓰는 기구(導以導櫛鬢髮使入巾幘裏)’나 ‘새우를 잡을 때 쓰는 대나무 그릇(全筮竹器取蝦具)’의 뜻을 알 수 있다. 『훈몽』, 『방석』, 『역유』, 『역보』 등에 ‘춤빗’으로 나온다.17) 『석요』와 『신자』에 ‘篋’의 자석으로 ‘빗치개’가 나오는데 이는 『표준』에 ‘빗살 틈에 긴 때를 빼거나 가르마를 타는 데 쓰는 도구, 뿔, 뺨, 쇠붙이 따위로 만들며 한쪽 끝은 얇고 둥글고 다른 한쪽 끝은 가늘고 뾰족하다.’로 풀이되어 있다. ‘쓰-’가 ‘춤춤하다’의 뜻이고 ‘미리’는 ‘밀다’의 뜻인 ‘쓰작미리’는 ‘귀밑머리까지 빗는 참빗과 같은 춤춤한 기구’를 나타내는 어휘이다.

⑥ ‘부벼’는 ‘송곳(穿物錐)’ 혹은 ‘돌이나 뿔을 부수는 기구(似紫石英斨羊角能碎)’를 뜻하는 어휘이다. 『훈몽』, 『몽하』, 『방석』, 『왜유』, 『역유』 등에 ‘비벼’의 형태로 나온다. 『석요』와 『신자』에는 모두 ‘송곳(錐/穿物錐)’으로 자석되어 있다.

12) 兵陣類

- ① 儻 츄들 참 | 互不齊師次不整又疾也又 | | 惡兒可輕賤雜言(下 兵陣 38次)

‘츄들’은 ‘가지런하지 않다(| 互不齊師次不整)’의 뜻으로 보인다. 『훈몽』

17) 篋 춤빗 비 『訓蒙』 篋了 춤빗질 한다 『방석』 篋子 춤빗 『방석』 密篋子 빈 춤빗. 『역유』 稀篋子 설편 춤빗. 『역유』 篋刷子 빗솔. 『역유』 篋了 춤빗질 한다 『역보』.

와 유해류 등 여타의 자석 자료에 ‘儻’은 나타나지 않고 『석요』와 『신자』에 ‘어긋날/서로어긋날(| 互不齊)’로 자석되어 있다.

13) 名數類

① 匱, 匱 윈통 흘 物完曰 | 匱渾侖全義(下 名數 43호)

② 髹 룡단틸 휴 髹髹全漆也赤多黑少之色器物一再著漆謂捐漆 | 轉聲
(下 名數 45호)

‘匱’과 ‘匱’의 자석 ① ‘윈통’은 ‘물건이 어그러짐 없이 온전한’을 뜻하는 어휘로 추정된다. 현대어 ‘온통’¹⁸⁾의 의미와 상통한다. 한문주석 ‘物完曰匱 匱’에서 ‘윈통’이 ‘온전한 것’을 이르는 말임을 알 수 있다. 한문주석에 나오는 ‘흘룬(匱匱)’은 『표준』에 ‘이지러지거나 모자람이 없이 이루어진 완전한 모양의 덩어리’의 뜻으로 등재되어 있다. 『신자』와 『석요』에도 모두 ‘匱’과 ‘匱’은 ‘덩어리’로 자석되어 있다. 『방식』과 『역보』에 용례 ‘匱匱呑 윈이로 습세다 『방식』, ‘匱匱呑 윈이로 습끼다 『역보』’가 나온다.

② ‘룡단틸’은 ‘옷칠하다(漆也)’의 뜻이다. ‘단틸’은 ‘붉은 칠(丹漆)’의 뜻인데 ‘룡’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 『석요』와 『신자』에 ‘髹’은 ‘옷칠할(以漆漆物赤黑色)’로 자석되어 있다.

14) 草木類

초목류에는 다른 부류에 비해 사전 미등재어가 상당히 많다. 이들 중 한 자어가 고유어보다 훨씬 많다.¹⁹⁾ 이들의 형태를 보면 일반 어휘 형태²⁰⁾와

18) 쪼개거나 나누지 아니한 덩어리. 또는 온전한 것. 『표준』.

19) 박병철(2006: 263)에서는 한자의 자석은 고유어가 이상적이지만, 한자어 자석이 쓰이는 이유는 표제 한자에 대응하는 고유어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한자의

‘초(草)’, ‘죽(竹)’, ‘목(木)’ 등 특정 음절이 규칙적으로 결합한 형태로 분류된다. 일반 어휘 형태는 한자어와 고유어를 포함해 25개이고 ‘초(草) 결합형’은 14개, ‘죽(竹) 결합형’은 7개, ‘목(木) 결합형’은 21개이다.

이들의 한문주석을 보면 대부분 ‘草名’, ‘藥名’, ‘藥草’, ‘木名’, ‘竹名’, ‘花名’ 등 일반 범주화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고, 모양, 색깔, 용도 등의 특징을 간략하게 제시해 놓거나 ‘~와 비슷하다[似]’ 혹은 ‘~와 같대소[同]’ 형식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제시된 한문주석으로 각 어휘의 명확한 뜻을 파악하기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²¹⁾ 그러나 고어사전과 현대 국어사전 그리고 여타의 문헌자료에 나타나지 않는 우리말 자석과 한문주석이 있는 것은 분류어휘집이자 사전적 성격을 지닌 『자류』의 문헌적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초목류의 사전 미등재 자석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일반 어휘

① 萼 싸다디 약 花跗華外曰萼(下 草木 48ㅎ)

‘싸다디’는 ‘꽃받침(花跗華外)’을 뜻한다. 『훈몽』에 ‘萼’은 ‘꽃고의²²⁾’로 나온다. 『석요』와 『신자』에는 ‘꽃바침’, ‘꽃잔’으로 나온다.

의미를 정밀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울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였다.

20) 여찬영(1991:12)에서는 식물명칭어의 유형 중 “단일 형태소로 된 낱말이나 자립적 형태로 된 낱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낱말의 형태소 수나 종류에 상관없이 식물 명칭어 가운데 ‘나무, 풀, 초, 꽃, 화, 나물’ 등이 결합되어 있지 않은 각각각색의 개별 명칭어”를 ‘독립된 낱말 형태’라 하였다. 본고에서 다룬 초목류의 사전 미등재 자석 유형 중 ‘일반 어휘’는 여찬영(1991:12)에 따라 ‘독립된 낱말 형태’와 동일한 의미의 유형이다.

21) 특히 식물명은 공통된 특징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들을 세분화하여 변별 제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2) ‘꽃고의’는 고어사전에 ‘꽃받침’으로 풀이되어 있다.

- ② 芬 라륙 륵 香茱蘿芬又藥名牛脂芬胡茱屬(下 草木 52ㄷ)
- ③ 芑 둔칙 둔 茱似芑可食又木始生兒又愚芑無知兒(下 草木 52ㄷ)
- ④ 芷 구리번쑤의 지 藥名白芷澤芬(下 草木 52ㅎ)
- ⑤ 芑 겨로기 니 薺芑似蓼芑芑茂盛(下 草木 53ㄷ)
- ⑥ 葦 던동출 럼 豨葦藥草又全葦按醫鑑作葦而字典作豨(下 草木 53ㅎ)
- ⑦ 蘘 우퇴 퇴 蘘全牛蘘方莖葉長穗間有華(下 草木 53ㅎ)
- ⑧ 蔞 진주봉 러 菴蔞草可蓋菴間故名又蔞茹又作蕙如蒿艾治瘀血(下 草
木 53ㅎ)
- ⑨ 茵 더위사기 인 香草蒿也茵蔯又褥也虎皮鞞全(下 草木 54ㄷ)
- ⑩ 草 덜덴쑤의 비 藥草草薺又薺蔽通隱蔽也又雨衣(下 草木 54ㄷ)
薺 덜매쑤의 기又히 草薺又芟也又藥草生水澆似澤瀉而小(下 草木 54ㄷ)
- ⑪ 蕒 표화 표 黃華茗萃又曰芬也(下 草木 55ㄷ)
- ⑫ 茱 즈렬 렐 紫茱桃茱荑菴可掃除不様(下 草木 55ㄷ)
- ⑬ 茨 썰늑 쑤 蒺藜蓋屋茅茨又積席(下 草木 55ㅎ)
蒺 썰늑 질 旱草蒺藜其刺傷人(下 草木 56ㄷ)
藜 썰늑 려又리 蒺藜(下 草木 56ㄷ)
藜 썰늑 극 草名顯藜商藜有刺蔓生又藜苑遠志也(下 草木 56ㄷ)
蕒 썰늑 쑤 惡草蒺藜又蕒白芷又草多兒(下 草木 56ㄷ)

②~⑬은 ‘풀’의 의미 범주에 해당하는 자식들이다. 한문주석 ‘香茱’, ‘茱似芑可食’, ‘藥名’, ‘薺芑似蓼’, ‘藥草’, ‘方莖葉長穗間有華’, ‘菴蔞草可蓋菴間故名’, ‘香草蒿也茵蔯’, ‘藥草草薺’, ‘紫茱桃茱’, ‘蒺藜’, ‘蒺藜其刺傷人’, ‘草名有刺蔓生’, ‘惡草蒺藜’ 등이 ‘풀 정보’에 해당한다. 한문주석에 나오는 한자어 중 ⑨ 인진(茵蔯), ⑩ 비혜(萑薺), ⑫ 도열(桃茱)은 『표준』에 등재되어 있다.²³⁾

23) 『표준』에 ⑨ 인진(茵蔯), ⑩ 비혜(萑薺), ⑫ 도열(桃茱)은 다음과 같이 풀이되어 있다.

⑨ 인진(茵蔯): 「1」, 『식물』=사철쑤.

「2」, 『한의학』 말린 사철쑤를 한방에서 이르는 말. 성질이 차며, 습열로 인한 황달과

- ⑭ 粗 차정 사 仝櫨又木閑(下 草木 58ㄷ)
- ⑮ 梁 사당 사 | 棠出岷崙山味如李無核按今白頭山들죽疑此類(下 草木 58ㄷ)
- ⑯ 樨 월초 당 越茶茱萸類三香椒 | 薑通作(++黨)(下 草木 58ㅎ)
- ⑰ 杌 구즈 구 | 槩梅狀似梅子赤似小柰 | 子山櫨一物(下 草木 58ㅎ)
- ⑱ 繫 계미 계 | 梅木名又桔槔上橫木轉機(下 草木 58ㅎ)
- ⑲ 杪 사라 사 | 櫨似桃根出麪(下 草木 59ㄷ)
- 櫨 사라 라 杪 | 又櫨木又籬落也(下 草木 59ㄷ)
- ⑳ 榑 부상 부 | 桑柎木日所出音扶(下 草木 59ㄷ)
- ㉑ 榧 익기나무 삼 杉本字似松船材(下 草木 60ㄷ)
- ㉒ 棟 고런 런 苦 | 似槐實名金鈴子(下 草木 60ㄷ)
- ㉓ 柜 거류 거 | 柳大葉似柳皮可煮作飲(下 草木 60ㅎ)
- 櫨 거류 거 櫨 | 又 | 柳柜或作 | 皮似檀槐葉如機櫨(下 草木 60ㅎ)
- ㉔ 櫨 뉴억 억 柎 | 似棣細葉又柎也弓榦柎爲上 | 次之(下 草木 60ㅎ)
- ㉕ 蒼 담복화 담 | 棘木名 | 菊花名(下 草木 61ㄷ)

⑭~⑮는 ‘나무’의 의미 범주에 속하는 자석들이다. ‘나무’와 관련한 의미들을 한문주석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仝櫨’, ‘梁棠’, ‘杌子山櫨’, ‘繫梅木名’, ‘似桃根出麪’, ‘櫨木’, ‘柎木’, ‘似松船材’, ‘似槐實名’, ‘大葉似柳皮可煮作飲’, ‘似檀槐葉如機櫨’, ‘似棣細葉又柎也’, ‘蒼棘木名’ 등이 ‘나무 정보’에 해당한다. ⑭~⑮의 자석은 이후 『신자』나 『석요』에서 ‘아가배(粗)’, ‘사당나무(梁)’, ‘월나라산초(樨)’, ‘아가위(杌)’, ‘사라나무(杪)’, ‘넙갈나무(櫨)’, ‘해도지뽕나무(榑)’, ‘삼나무(榧)’, ‘고런나무(棟)’, ‘썩갈나무(柜, 櫨)’, ‘참죽나무(櫨)’ 등, 나무 이름 형태로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고, 일부는 일반 범주

소변의 양이 적으면서 잘 나오지 아니하는 증상에 쓰인다.

- ⑩ 비해(萆薢): 『한의학』 나도물통이의 뿌리. 풍습(風濕)을 없애고 소변을 잘 통하게 함으로써 요통이나 팔다리가 쭈시는 증상을 치료하는 데 쓴다. ≍냉반단·선유량.
- ⑪ 도열(桃茱): 『민속』 복사나무의 가지와 갈대의 이삭으로 만든 비. 잡귀를 쫓는 데 쓴다.

의 ‘나무일흠’으로 나오는 것도 있다. 또 아예 표제 한자로 수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다. ㉕ 담복화(蔞)는 『자류』의 한문주석에서는 ‘나무’의 의미와 ‘꽃’의 의미가 모두 나오는데 『신자』와 『석요』에서는 ‘치자꽃(花名蔞蔔)’으로만 나온다. 우리말 자석만으로 봤을 때 ‘담복화’는 ‘꽃’의 의미에 더 가까운 것으로 추정된다.

(2) 초(草) 결합형

- ① 蔑 러초 러 草可染靑黃又曰染緋蒼艾色(下 草木 55ㄷ)
- ② 蔞 종초 중 染緣草又木細枝(下 草木 55ㄷ)
- ③ 蔞 역초 역 草雜色似綬(下 草木 55ㄷ)
- ④ 蒹 두영초 망 杜榮茅類(下 草木 55ㄸ)
- ⑤ 董 동초 동 似蒲而細可爲屨亦可爲索一曰溝根(下 草木 55ㄸ)
- ⑥ 蒹 권시초 시 草名卷蒹豆屬蒹菴拔心不死(下 草木 55ㄸ)
- ⑦ 蔞 양초 양양탕 草名枝枝相值葉葉相當儻募蔞無行檢(下 草木 55ㄸ)
- ⑧ 葳 침초 침 酸醬草大葉冬藍馬藍(下 草木 55ㄸ)
- ⑨ 莛 병초 병 馬帚草名又使也(下 草木 55ㄸ)
- ⑩ 蔞 위초 위 草名姓也(下 草木 55ㄸ)
- ⑪ 萬 우초 우우구 草也姓也又作楸木名(下 草木 55ㄸ)
- ⑫ 苻 부초 부 鬼目草似蔞姓也(下 草木 55ㄸ)
- ⑬ 邁 과초 과 草名又寬大兒又飢意(下 草木 55ㄸ)
- ⑭ 莨 간초 간 毛莨鉤吻也形及毒似草烏頭苗(下 草木 56ㄷ)

①~⑭는 한자음에 ‘초’가 결합된 자석 형태로 모두 ‘풀’을 나타내는 자석이다. 이후 『석요』나 『신자』에서 이들 표제 한자의 자석들을 보면, 蔞, 蔞, 蒹, 邁는 ‘종풀(蔞)’, ‘역풀(蔞)’, ‘권시풀(蒹)’, ‘과풀(邁)’ 등 한자 ‘초’가 우리말 ‘풀’로 바뀐 형태로 나오고 董, 葳, 苻, 莨은 ‘자오락(董)’, ‘청덕/쇠아리(葳)’, ‘귀목풀(苻)’, ‘노저나물썩/바곳이삭(莨)’ 등 식물명으로 나온다. 이

유형에서는 『자류』, 『석요』, 『신자』의 한문주석은 대동소이하다. 『자류』의 자석 형식이 2음절로 간략하기는 하지만 모두 한자어이기 때문에 『석요』나 『신자』의 자석보다 의미 이해가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 한편 ‘蒨’, ‘蒨’, ‘莽’, ‘萬’은 『석요』와 『신자』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고 ‘葛’은 풀의 의미와는 상관없는 ‘방탕할(不自收斂儼 |)’로 『석요』에만 나온다.²⁴⁾

(3) 죽(竹) 결합형

- ① 篋 도죽 멸 桃枝竹又竹皮又小兒(下 草木 57次)
- ② 簾 로죽 로 筠色潤貞爲篋又大筐又戟柄櫨通柱上柎(下 草木 57次)
 篋 로죽 로 竹名有毒(下 草木 57次)
- ③ 筍 포죽 포 荔浦竹冬筍(下 草木 57次)
- ④ 簾 미죽 미 籊全竹名中作箭筍冬生葉如扇(下 草木 57次)
- ⑤ 鐘 종롱죽 종 鐘籠竹名可爲笛又竹器(下 草木 57次)
- ⑥ 篋 근죽 근 竹名堅勁皮白取瀝根莖皆入藥(下 草木 57次)
- ⑦ 筍 반죽 원 竹黑皮有文(下 草木 57次)

①~⑦은 한자 ‘죽(竹)’이 결합된 자석 형태로 모두 대나무를 뜻한다. 한문주석을 보면 대부분 ‘竹名’이 있고 ‘桃枝竹又竹皮又小兒’, ‘筠色潤貞爲篋’, ‘有毒’, ‘冬筍’, ‘冬生葉如扇’, ‘可爲笛’, ‘黑皮有文’ 등 구체적 특징을 나타내는 내용이 있다. ① 篋, ② 簾를 제외한 나머지 표제 한자들은 『석요』와 『신자』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24) 동일 표제 한자에 대해 『석요』와 『신자』간에는 자석의 형태가 다른 점이 있는데,

⑥ 蒨의 경우 『신자』에는 『자류』와 동일한 의미의 ‘권시풀’로 자석되어 있는 반면 『석요』에는 일반 층위의 ‘풀일흙’으로 나온다. 자석 자료에 따라 자석 방식이 다른 데에는 ‘독자 계층’, ‘편찬자’ ‘전거문헌’ 등 여러 요인이 있다.

(4) 목(木) 결합형

- ① 柅 니목 니又닐 木名實如梨又 | |茂盛兒又絡絲柅止車木又察也又 닐
止也(下 草木 58호)
- ② 棧 염목 염 棧其也實似赤可食又木名膠可和香梓 |材堪船(下 草木 58호)
- ③ 檝 휘목 휘 大椒樹叢生實大者(下 草木 58호)
- ④ 樽 능목 능 木皮入酒浸治風(下 草木 59호)
- ⑤ 杭 원목 원 木皮厚苦?煎汁藏果不敗(下 草木 59호)
- ⑥ 幢 동목 동又장 花可績爲布又幢通陷陳車又幢장通旗竿(下 草木 59호)
- ⑦ 椶 패다목 패 貝多木出摩伽佗國取其皮書之本作具?甸具樹取其華 寫
書(下 草木 59호)
- ⑧ 櫛 누목 누 櫛 |木皮可染紫又爲棺槨(下 草木 59호)
- ⑨ 棼 춘목 춘 棼棼木似호?漆琴材也棼櫛櫛全(下 草木 60호)
- ⑩ 披 피목 피 櫛也一名粘又榧實一名 |子(下 草木 60호)
- ⑪ 榧 편목 편 南方大木似豫章(下 草木 60호)
- ⑫ 柎 나목 나 拘 |花葉略似楊柳淡紅花夏開秋深猶有(下 草木 60호)
- ⑬ 榦 단타목 단 |柎一名拖樹似白楊耐濕一名木槿又曰피나무(下 草木
60호)
- ⑭ 榦 활목 활 柎榆一名落素謂樸也皮可緬素材可杯器(下 草木 60호)
- ⑮ 桴 영목 영 木可爲笏(下 草木 60호)
- ⑯ 櫛 전목 전 白理木可爲勺又爲櫛(下 草木 60호)
- ⑰ 榦 상스목 스 相思木理堅有文可作器實如珊瑚(下 草木 60호)
- ⑱ 櫛 칩목 칩 |棘堅韌者可爲射波又櫛棗也(下 草木 60호)
- ⑲ 欒 단목 란 木似欄又曰似槿又鐘口兩角又 | |瘠兒(下 草木 60호)
- ⑳ 槎 이목 이 赤棟葉如柞皮厚而白木理赤者爲赤棟又曰 |堅韌爲?又대
|桑女桑(下 草木 61호)
- ㉑ 枕 선목 선 子赤如大豆呼雷鳴子(下 草木 61호)

①~㉑은 ‘목(木)’이 결합한 자석 형태로 모두 ‘나무’의 의미이다. 이들

외에도 『자류』에는 ‘목(木)’이 결합된 자석 ‘규목’, ‘총목’, ‘만목’, ‘남목’, ‘적목’이 있는데 ‘규목’, ‘총목’, ‘만목’, ‘남목’, ‘적목’은 ①~⑳와 달리 『표준』에 ‘물푸레나무’, ‘두릅나무’, ‘덩굴나무’, ‘녹나무’, ‘잎갈나무’로 풀이되어 있다. ①~㉑은 『석요』와 『신자』에 ‘팻배나무/수레고동목(梶)’, ‘재엄나무(椈)’, ‘호초나무(檜)’, ‘원나무(栢)’, ‘동나무(槿)’, ‘패나무(楸)’, ‘구누나무(櫟)’, ‘참죽나무(楸)’, ‘비자나무(椈)’, ‘편나무(椈)²⁵⁾’, ‘피나무(椈, 櫟)’, ‘전나무(櫟)’, ‘란나무(櫟)’, ‘가나무/가시목(楸)’ 등 구체적 나무명칭어로 자석되어 있기도 하고 ‘나무일홈’으로 일반층위의 자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로써 나무명칭어 상호간의 연관성을 살필 수 있다. ④ 櫟 ⑮ 楸 ⑰ 櫟 ⑱ 椈 ⑳ 楸 ㉑은 『석요』와 『신자』에 표제 한자로 수록되어 있지 않다.

3. 맺음말

어휘사적인 측면에서 어휘 연구는 시기별 문헌에 수록된 개별 어휘들의 의미와 형태 등을 면밀하게 비교 분석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문헌을 찾고 그것을 분석 연구하는 작업은 우리 국어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19세기 후반의 자석 자료인 『자류』(1856)에 수록된 자석들 중 고어사전과 현대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자석들을 추출하여 이들의 의미를 알아보고 새로운 어휘 정보를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다.

한자 자석(字釋) 자료는 표제 한자의 제1자석이 대체로 변하지 않고 이어져 온다는 점에서 어휘의 보수성을 갖고 있지만 많은 어휘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어 연구에 유용한 자료이다. 자석 자료를 살피다

25) ‘椈 편목’은 『신증』에도 자석이 ‘편목’으로 나온다.

보면 전후 시기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는 자석 형태를 흔히 볼 수 있다. 10,800여 한자가 의미에 따라 35부류로 나뉘어 수록되어 있는 『자류』에도 여타의 자석 자료들에서 발견할 수 없는 어휘 형태가 상당수 나타난다. 이들의 사전 자료 등재 여부도 매우 불규칙적인데 사전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대다수이다.

『자류주석』에서 추출한 사전 미등재어는 모두 92개로 ‘좁상이별’, ‘간습’, ‘식진’, ‘잠위약’, ‘알울’, ‘변협’, ‘쟁길’, ‘피널’, ‘불염간어’, ‘씩일’, ‘만포’, ‘단곡의’, ‘동다외’, ‘골탈’, ‘본손’, ‘고오리’, ‘시굉’, ‘무자애’, ‘씩작미리’, ‘부뵤’, ‘츨들’, ‘윈통’, ‘꼬다디’, ‘라륙’, ‘둔척’, ‘구리번썰의’, ‘겨로기’, ‘딘동출’, ‘진쥬봉’, ‘우퇴’, ‘더위사기’, ‘덜맨썰의’, ‘표화’, ‘즈렐’, ‘차정’, ‘사당’, ‘려초’, ‘종초’, ‘역초’, ‘두영초’, ‘도죽’, ‘로죽’, ‘포죽’, ‘미죽’, ‘니목’, ‘염목’, ‘훼목’, ‘능목’, ‘원목’, ‘동목’ 등이 있다. 고유어보다 한자어 자석 수가 더 많고 부류별로는 초목류(草木類)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 특히 초목류의 자석 형태는 일반 어휘 형태와 ‘초(草)’, ‘죽(竹)’, ‘목(木)’ 등 특정 음절이 규칙적으로 결합한 형태로 분류된다.

해당 자석의 한문주석 분석을 통해 살펴본 이들의 의미는 각 부류별 의미 범주에 속하는 일상적인 의미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후 『석요』나 『신자』에는 이들 자석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자류』에만 나타나는 유일 자석 어휘로 추정되는 것들도 많다. 이는 근대 국어 시기에 그 수와 사용이 늘어난 한자어 어휘와 함께 국어어휘사 자료 목록에 추가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92개의 어휘가 당시에 실지로 쓰인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없기에 이들을 회귀어라고 규정하기도 사실은 어렵다. 하지만 자전적 성격의 문헌인 『자류』에 등장하는 어휘로서 국어어휘사적인 측면에서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에 주목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연구의 성과는 앞으로 더욱 다양하게 나올

것으로 본다. 한 예로 『자류』 초목류의 자석 유형 중 동일 형식의 자석들이 사전 등재가 불규칙적인 것을 미루어 이에 대한 어휘론적, 사전편찬학적 관점의 심도 있는 연구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한자 자석 자료에 나타나는 사전 미등재어들의 의미와 형태를 규명하는 연구를 통해 우리 어휘사에 새로운 어휘 목록을 추가할 수 있고 보다 폭넓은 어휘 정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진규, 『訓蒙字會 語彙研究』, 형설출판사, 1993, pp.46-154.
- 남기탁, 「한자훈 연구」, 『인문과학연구』11, 강원대학교, 2003, pp.2-22.
- 박병철, 『한자 훈석 어휘 연구』, 이회, 1996, pp.275-302.
- _____, 『『註解千字文』의 단수자석과 문맥자석의 반영에 대하여』, 『구결연구』17, 구결학회, 2006, pp.244-247, pp.263-265.
- 박형익, 『한국 자전의 역사』, 역락, 2012, pp.63-96.
- 서수백, 『『字類註釋』의 사전적 체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pp.95-164, pp.213-217.
- _____, 「『훈몽자회』와 『자전석요』의 한자 자석의 의미정보 수록 양상 비교 연구」, 『언어과학연구』55, 언어과학회, 2012, pp.121-124.
- 서재극, 「신자전의 새김말에 대하여」, 『국문학연구』5, 효성여자대학교, 1976, pp.225-235.
- 성원경, 「『字類註釋』 연구」, 『인문과학논총』28, 건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6, pp.145-162.
- 손희하, 「새김어휘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pp.12-173.
- 신경철, 『國語 字釋 研究』, 탑출판사, 1993, pp.359-400.
- 여찬영, 「식물 명칭어 연구」, 『한국전통문화연구』7, 대구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1, pp.11-13.
- _____, 「지석영 『자전석요』의 한자 자석 연구」, 『어문학』79, 한국어문학회, 2003, pp.194-209.
- 유은경·남길임, 『한국어 사전 편찬학 개론』, 역락, 2009, pp.221-260.
- 유창균, 「國語學에 있어서 漢字研究의 位相」, 『한민족어문학』35, 한민족어문학회, 1999, pp.23-28.
- 이기문, 『國語 語彙史 研究』, 동아출판사, 1991, pp.255-288.
- 이돈주, 「한자 의미의 변별성과 국어 자석의 문제 -훈몽자회의 釋과 하주를 중심으로-」, (같은 문선규 박사 화갑 기념 논문집), 1985, pp.133-158.
- 이용백, 「漢字 새김의 現實化 問題」, 『국어생활 통권』17, 국어연구소, 1989, pp.81-95.
- 장영길, 「언해두창집요의 회귀어 고찰」, 『어문학』87, 한국어문학회, 2005, pp.236-245.
- 최범훈, 「字典釋要에 나타난 難解字釋에 대하여」, 『국어국문학』70, 국어국문학회, 1976, pp.50-73.

Abstract

A Study on the Meaning of Chinese Characters in 『*Jaryujuseok*』
- Focusing on Unregistered Words in Dictionaries -

Seo, Su-Baek

This research purports to discover Chinese characters in 『*Jaryujuseok*』 (1856) (a dictionary of Chinese characters published by Jeong, Yoon-Yong in 1856, one of references on Chinese characters in the late 19th century, which are not listed on dictionaries of archaic words and dictionaries of modern Korean language, investigate their meanings and acquire information of new vocabularies.

There are a considerable number of Chinese characters in 『*Jaryujuseok*』 which are not carried in the dictionaries of archaic words but in the dictionaries of modern Korean language. Regarding that 『*Jaryujuseok*』 was published in the 19th century, however, it is considered that the analysis of Chinese characters which are not included both in the dictionaries of archaic words and dictionaries of modern Korean language can be much worthy.

The total number of Chinese characters found in 『*Jaryujuseok*』, not registered in the dictionaries, is 92, and particularly, most are from the category of grass and trees and the number of Chinese characters outnumbers that of pure Korean words.

The examples are ‘좁상이별(Jyom-syang-i-byeol)’, ‘간습(gan-sap)’, ‘식진(sui-jin)’, ‘잠위약(jyam-wi-yak)’, ‘얄울(yal-ul)’, ‘변협(byeon-heop)’, ‘쟁귄(sding-guil)’, ‘피넬(pi-nyeol)’, ‘단곡의(dan-gok-ui)’, ‘본손(bot-syot)’, ‘츄들(cheut-deul)’, ‘원통(oen-tong)’, ‘소다티(sgo-da-dae)’, ‘려초(ryo-cho)’, ‘도죽(do-jyuk) and ‘니목(ni-mok)’.

Their meanings through the analysis of annotation of each Chinese character mostly show ordinary senses which belong to each category of meaning. However, those forms of characters do not appear in 『*Jajeonseokyo*』,

a dictionary of Chinese characters published by Ji, Seok-Yeong in 1906 and 『*Sinjajeon*』, a dictionary of Chinese characters published in 1915. Therefore, it is assumed that many of those types of vocabularies are only shown in 『*Jaryujuseok*』.

A study on vocabularies in the perspective of the history in Korean vocabulary started from comparing and analyzing meanings and forms of each vocabulary thoroughly included in literature by time. Accordingly, it is very significant to discover and examine new references for further studies on Korean language. The materials on Chinese characters are useful for obtaining more information of vocabularies.

Investigating materials on Chinese characters, new forms of characters never found around that era are easily discovered. In addition, 『*Jaryujuseok*』 has a large number of new word shapes not detected in other literature on Chinese characters. Therefore, the investigation of those meanings and forms can help add a new vocabulary list to the history in Korean vocabulary.

Key Word : *Jaryujuseok*, Chinese characters, Unregistered words in dictionaries, references on Chinese characters, history in Korean vocabulary, annotation of Chinese character, category

서수백

소속 : 대구가톨릭대학교 한국어문학부 조교수

주소 : (712-702) 경북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 13-13

전화번호 : 053) 850-3182 / 010-5437-1626

전자우편 : jdche@hanmail.net

이 논문은 2014년 2월 28일 투고되어
2014년 3월 25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4년 4월 8일 게재 확정됨.